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14:00~18:00

장소 | AW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주최 | 국가교육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 세부일정

일시	세부일정
14:00~14:30 (30')	등록
14:30	개회 사회: 장윤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30~14:50 (20')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인사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4:50~15:50 (60')	주제발표 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발표: 임유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2.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발표: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
15:50~16:00 (10')	휴식
16:00~17:10 (70')	지정토론 좌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소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박진솔 (하자센터 오디세이 학교 2기 졸업생)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박찬열 (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7:10~18:00 (5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8:00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1	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임유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21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	
○ 토 론	37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소장_	39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_	42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_	65
박진슬 하자센터 오디세이 학교 2기 졸업생_	68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_	70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_	73
박찬열 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_	77

주제발표 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임유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부연구위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임유나(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 발표문은 이광우 외(2018)와 이미숙 외(2019)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차례

고교학점제 개관

학교 밖 학습경험 편성 · 운영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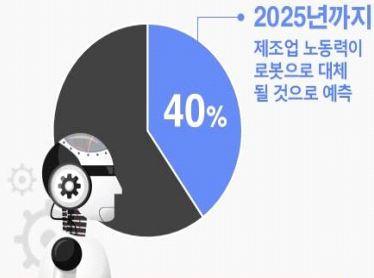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외 사례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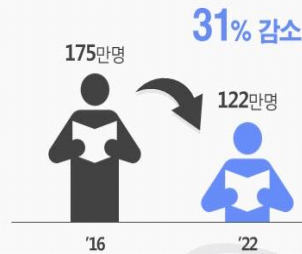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 예상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
학업 및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체제 마련 시급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 기회로 활용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문제점

고교교육은 대입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지나친 성적 경쟁을 유발,
학교가 소수 상위권 학생의
입시 성과 기준으로 이루어짐

일반고의 학력과 학습의욕 저하로
공교육의 위기 심화,
교육과정과 학교의 혁신을 위한
현장 동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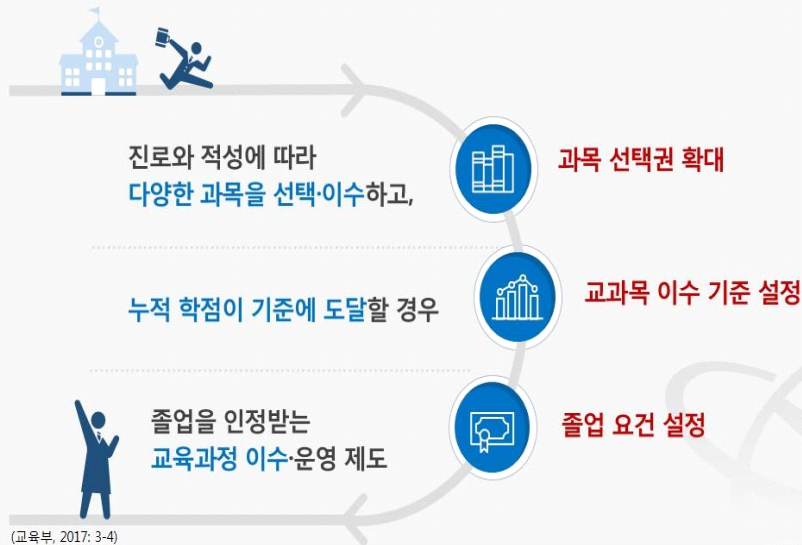
개선 방향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성장 견인

수업·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강화,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실현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배움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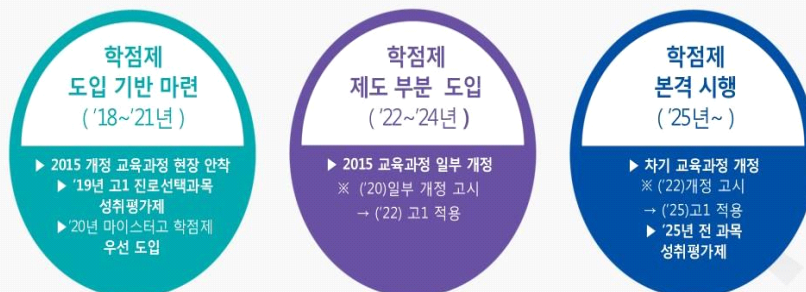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 ▣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
- ▣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도 부분 도입
- ▣ '25년 **전과목 성취평가제 적용으로** 완성된 형태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마련
 ※ '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본격 도입

고교학점제



비전

학생 스스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

목표

미래사회 역량을 지닌
자기주도적 학습자 양성

모든 학생의 학습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실현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배움 공동체 형성

세부
과제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혁신

- ▶ 학점제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
- ▶ 소인수과목 개설,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 ▶ 수강신청 및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체제 구축

학생 성장중심 수업 및 평가체제 확립

- ▶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 ▶ 성취평가 실시 및 교과목별 성취수준
- ▶ 이수·미이수제 적용을 통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교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 ▶ 교원의 배치 및 활용 유연화
- ▶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의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
- ▶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가변형 교실, 학생 학습활동 공간 확충 등)

배움 공동체 문화형성

- ▶ 전통적 학급담당제와 이동식 학점제 문화의 조화
- ▶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및 전문가로서의 교직원문화 정착
- ▶ 학생 참여 문화(학생 자치 활성화 및 학교 공간, 교육과정 등) 실현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징



영역별·단계별 교육과정 적용으로 진로 및 학습 수준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밖 학습, 유연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경험을 확장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적용

- ☑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및 학습 수준에 따라 영역별·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정 및 적용
※ 1학점 정의, 졸업 이수학점 제시, 과목 재구조화 등



선택형 교육과정 안착

- ☑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 적극 수용
- ☑ 교·강사가 부족한 경우 학교 간 연합으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 ☑ 학교 내 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 밖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확대



학교 밖 학습경험 편성 · 운영의 맥락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 인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지역사회 학습장, 대학(전문대학), 청소년 단체(기관), 예체능 단체, 직업교육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과목(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광우, 2018: 32).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근거



국가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관련 근거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일부 시·도 교육청 사례)

지역사회 학습장의 범위에 대한 지침

강원도교육청

-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 기관 및 산학 협력 업체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절차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밖 학습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 학교장은 해당 심사 결과 및 위탁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주체

대체로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장이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을 인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교육청의 지침 준수 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함.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과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 과목으로 인정함.

경기, 강원, 제주도교육청

-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신청서' 사용

<참고1>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일부 시·도 교육청 사례)

교육청	유형	개설 과목	운영단위	운영시기	학생수	평가	비고
서울	거점학교	·보통교과 ·전문교과	3단위 이상	일과중 방과후, 주말 방학중 (계절학기 지양)	학급당 15명 내외 *20명 권장	·석차등급 ·교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입력	2/3 출석시 인정
	연합형	·보통교과 ·전문교과	2단위 이상 (5±3)이나 3단위 이상	일과중 방과후, 주말 방학중 (계절학기 지양)	학급당 15명 내외 *20명 권장	·석차등급 ·교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입력	
세종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 I	·심화과목 ·예체능실기전공교과 및 전문교과	2단위 이상	토요일 오전	13명 이하	·석차등급 미산출 &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산출 *13명 초과인 경우 등급 산출 *예체능전공실기교과 전문교과에서 과정평가로 운영하는 경우 등급 미산출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 II	인문학, 생활 과학 등 진로전공 강좌	1학기 2시간 (7회*3시간)	평일 오후 토요일	10명 내외		.7회중 5회 이상 출석 .진로방과후 교실
인천	공동 교육과정	·보통교과 ·전문교과 ·프로그램	학기당 2단위 이상(학년기준 4단위 이상)	방과후, 주말, 방학	15명 내외	·석차등급 ·교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2/3 출석시 인정
경기	교육과정 클러스터	·진로 연계 심화과목 ·전문교과 및 심화과목	학기당 3단위 이상(학년당 6단위 이상)	월~금요일 오후 토요일	13명 이상	·보통교과와 심화과목 5단계~9등급 *13명 이하 학생수도 입력(A-B-C-D-E 석차)로 입력 ·전문교과 5단계	무학년제

〈참고2〉 공동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의 연계



| 정규 교육과정 -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 이수간의 연계 지점

- 개설 과목의 성격 •
 - λ 보통교과, 심화과목, 전문교과
- 이수 단위/학점 인정의 범위 •
 - λ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과목 운영 단위 5단위
 - λ 학기당 2-3단위 운영
- 이수 시기 •
 - λ 방과후, 주말, 방학 등 이용
 - λ 학생들이 선택-이수한 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수 과목이라기보다는 추가로 이수하는 과목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 λ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희망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일과 중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 •
 - λ 인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 운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λ 지역 간, 학교 간 인프라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소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성격



- 학생의 필요와 요구 존중 및 학교 자율성 확대 •
 - λ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하여 학교 밖 학습경험의 제공은 학교와 학생의 필요 및 요구를 존중하고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지향함.
 - λ 학교 밖 학습경험은 학생의 자율적인 생애 경로의 탐색과 설계를 돕고자 하는 일환에서 검토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일정한 요건과 체계 필요 •
 - λ 학교 밖 학습경험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과 상응하는 내용, 방법, 성취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인정 •
 - λ 학교 밖 학습경험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다원적인 경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
 - λ 학교 밖 학습경험을 무조건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살리면서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외 사례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 사례

경기 꿈의 학교



성격

- ✓ 학교 안팎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 배움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도전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원함.
-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함.



유형

- ✓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 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운영 주체가 됨.
-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지자체, 비영리단체, 학부모, 개인이 운영의 주체가 됨.
- ✓ 마중물 꿈의 학교: 학부모와 개인이 운영의 주체가 됨.



특징

- ✓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없음.
- ✓ 1년 간 1개의 꿈의 학교만 참여 가능
- ✓ 각 유형별로 운영 주체, 최소 운영 시간, 심사 방법이 다름.
- ✓ 세 유형 모두 인정 절차, 이수 기준, 결과 제시 방식이 동일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 사례



경기 꿈의 학교

과목 개설 방식	사전 계획서가 심사의 대상이나, 과정 중 학생들의 요구와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이수 시기	매년 11월 말일 기준	
수강 시기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평가 방식	11월 말일 기준,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생부 기재 가능
	기록	최소 운영 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기록
기타	수강 비용	다양
	학생 안전 문제	학생안전보험 의무 가입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 사례



대구 꿈 창작 캠퍼스



성적

- ☑ 융합적 사고력과 자기설계 역량을 신장시키는 대학결합형 교육 프로그램(고교-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 ☑ 대학(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의 희망과 선택에 의해 수강하도록 함.



특징

- ☑ 대상: 일반계고 고등학교 전 학년 희망 학생
- ☑ 시기: 1학기, 2학기, 겨울방학 등 총 3기로 운영함.
- ☑ 기수별로 학생의 신청을 받아 대학과 연계하여 무학년제로 운영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 사례



대구 꿈 창작 캠퍼스

과목 개설 방식	[사전] 시교육청 운영 계획 수립 → 교육 기관 공모 → 강좌 개설 *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강좌 질 관리 및 공감대 확대	
학점 인정 범위	기수별 36시간으로 2학점(단위) 인정 가능하나, 현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운영	
이수 시기	고 1학년(2학기부터 가능)~고 3학년까지 이수 신청 가능	
수강 시기	[1학기/2학기] 주 2회(수요일 방과 후, 토요일 오전) [동계 방학] 주 3~4회 집중 이수 가능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절차	교육 기관 공모 → 수강 신청, 확정 → 꿈 창작 캠퍼스 운영 → 기록, 관리
	기준	강좌당 70%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처리
평가 방식 및 학생부 기록	평가 방식	현재 정규 교육과정 과목이 아닌 진로탐색 자기설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 별도 평가 없음.
	기록	[학교생활기록부]-[학생활동]-[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칸에 이수결과 기재 기록 주체: 학급 담임
기타	수강 비용	[교육청] 교육 기관에 강좌 운영 예산 지원(강사료, 재료비, 성과발표회 운영비 등), 학생 무료 수강 원칙 [교육 기관] 학생에게 실험·실습 재료비 등 잡부금 부과 금지
	학생 안전 문제	[학생 관리] 교육기관별 교육생 관리 담당자(1명) 지정 → 안전사고시 치료비 등 지원 [교육 기관] 학생 상담록 비치 → 상담 내용 기록, 교사 및 학부모와 전화 상담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내 사례(종합)



- 이수 시기 •
λ 학교 밖 학습은 일과 중이 아닌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에 이루어짐.
- 평가 방식 •
λ 별도의 평가 없음.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평가함.
λ 이수 기준은 다소 다름 (꿈의 학교는 최소 80%, 꿈 창작 캠퍼스는 70% 출석 시 이수를 인정)
- 학생부 기록 •
λ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칸에 학급 담임 교사가 기록함.
- 프로그램 비용 •
λ 경기 꿈의 학교의 경우 수강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음.
λ 대구 꿈 창작 캠퍼스의 경우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함.
- 학생 안전 •
λ 경기는 학생안전보험 가입을 의무 시행함.
λ 대구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사전 협의하여 치료비를 지원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외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이중 학점 프로그램 (Dual Credit Programs)

- 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
- 중등학교에서 온타리오 중등학교 졸업 자격(OSSD)과 중등 이후 과정의 수료증, 졸업장, 견습생 증명서, 학위에 포함되는 대학, 도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 따라 대학 교수, 강사 및 중등학교 이중 학점 담당교사가 수업함.
- 이중 학점 프로그램의 유형
 - 대학 제공 코스: 최대 4학점까지 졸업자격 학점으로 인정함.
 - 팀 티칭 코스: 제한이 없으며, 졸업 자격 획득하는 필수학점까지 딸 수 있음.

계절 학교 (Summer School)

- 교육과정 지침에 입각한 계절 학점 코스 운영
-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코스 선택이나 선수과정 등 관련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정규 학점 코스(Regular Credit Courses)와 보충 학점 코스(Remedial Credit Courses)를 운영함.
- 출석이 반드시 요구됨.
- 평가는 모든 학생들은 지정된 날짜에 최종 시험이나 필요 활동에 대한 시연을 치름.
- 토론토 학교구의 경우, 수업 시작은 7월 3일, 종료는 7월 27일.
- 모든 정규 학점 코스는 월요일~금요일, 매일 오전 8:45~오후 3:30 수업 진행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외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야간학교

- 출석, 성적, 평가 등 대체로 계절학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함.
- 대부분의 코스는 오후 6:30~9:30에 운영함.

학점 회복 과정 (Credit Recovery Courses)

- 어떤 학년/학기에 과정을 완료했으나 통과 수준까지 교육과정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옵션
- 전체 교육과정 기대치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만 반복할 수 있음.
- 방법: 계절 학교, 개인 연구, 개별화된 보충 프로그램, 원격 교육 등
- 코스 전체 재수강 가능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

- 도제교육 환경을 갖춘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전문 고등 기술 전공

- 농업, 사업, 건축, 음식물 처리, 관광, ICT 등과 같은 직업이나 커리어와 관련된 고등 기술 지식이나 기능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 학생들은 실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거나 학교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관련된 기술과 기능 등을 습득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외 사례



미국 오하이오 주 학점 유연화 계획(Credit Flexibility Plan)

- 목적: 고등학교 학점을 학교(교실)의 수강 과정을 넘어 해당 교과에 대한 역량을 시연하는 것에 기반을 둔 유연한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
-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에는 제한이 없음.
- A, B, C, D, F의 5등급으로 성적 부여, 학생 성적(GPA)에 포함됨.
- 졸업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들

온라인 코스	숙련도 평가	개별화 학습 계획
주에서 수립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수강, 요구되는 평가 기준 충족 시 학점 수여	원래의 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본질적인 교과 내용 지식 등을 성취했음을 종합시험을 통해 입증 프로젝트나 문제 기반 평가 부과, 그 결과에 따라 학점 유연화 위원회가 성과와 학점 결정	개별 연구, 인턴십/현장 경험, 커뮤니티 서비스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서 학점 획득

학교 밖 학습경험의 국외 사례(종합)



- 프로그램 개설 방식 •
 - λ 대체로 주 교육부 혹은 교육위원회나 학교구, 해당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 이수 인정 범위 •
 - λ 필수 학점과 선택 학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따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형태임.
- 이수 시기 •
 - λ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함.
 - 계절 학기는 방학 중 이루어지며, 야간 학기 과정은 주중 저녁 시간을 활용함.
 -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나 이중 학점 프로그램 등은 정규 학교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기도 함.
- 학점 인정 절차 •
 - λ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인정 기준의 경우 정규 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지식, 기능, 기술 등 정해진 시험이나 시연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학교 밖 학습경험의 장(場)

단기 방안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의 부설 기관, 지자체 부설 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장기 방안

- 점차적으로 시설 요건을 규정화하면서 학교 밖 학습의 장을 확대할 필요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이수 과목과 학점 인정의 범위



이수 과목의 성격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광우 외, 2018).
- 공동 교육과정은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지역사회학습장에서의 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함.
- 개설의 범위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혹은 연계된 과목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목
- 과목 프로그램 개설 방식
 - 교육감이 사전 인정한 과목

이수 학점

- 지역사회 학습장을 이용한 이수 과목 학점의 범위:
10학점 이내 (이미숙 외, 2019).
-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범위 포함 여부 검토 필요

[현장 의견]

-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을 대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진로와 연계된 학습자의 교양적 성격 특히 예체능 관련 과목 개설 필요가 있음
- 너무 많은 과목으로의 확대는 운영상 어려움 및 일반학교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이수 시기와 수강 시기



이수 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3개 학기)

[현장 의견]

- 연구선도학교 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임
-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여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이수하는 것이 좋음
- 3학년 2학기의 경우 미이수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제외하는 것이 좋음

수강 시기

- 일과 중, 방과후, 주말, 방학 중/계절학기 등
 - (일과 중 운영 시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
 - 정규 시간표 구성의 유연성 확보
 - 학교와 학교 밖 학습경험 개설 기관과의 연계 필요

[현장 의견]

- 일과 중이 아닌 방과후, 주말 방학/계절학기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강 시기에 개설이 필요함.
- 외부 수업은 행정적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과 외 시간에 수강하는 것이 좋음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절차와 인정 기준



인정 절차

- 현행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점 인정
- * 공동 교육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과 '학교 밖 학습 경험'이 동일한 성격이 아닌 점 고려 필요

[현장 의견]

- 연구선도학교 교원들은 현행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봄
- 인정 절차가 복잡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및 행정 업무 증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학교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현행 방식을 통해 수강 신청과 인정 과목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인정 기준

- 출석 이수 기준 +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
 - 예) 2/3 출석 + A, B, C, D, E 5단계 중 D 이하의 경우 미인정 (단, 과목에 따라 인정 기준을 달리함.)
 - 이수 기준 미충족 시 보충학습기회 제공 유무 검토
- 현행 공동 교육과정의 단위/학점 수 인정 기준 준용

[현장 의견]

- 출석 이수 기준에 미리 정해진 이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현행 공동 교육과정의 단위/학점수 인정 기준을 차용해야 함
-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임.

학교 밖 학습경험의 평가 및 기록



단기 방안

- 과목 개설 기관에서 평가 기준과 평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평가 및 기록은 공동 교육과정의 방식을 준용
- [평가]
 - 과목 개설 운영 기관의 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평가 방식을 적용함.
 - 다만, 교과나 프로그램, 수업, 학생 학습 활동의 특징에 기반한 평가를 전제함.
- [기록]
 - 학교 밖 학습 운영 기관과 학생 소속학교의 역할을 각기 부여함.
 - 원격교에서는 나이스로 송부된 자료들을 입력하고 학생부에 반영함.

장기 방안

- 차기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과 평가에 비견할 수 있는 평가 및 기록 방안 적용
- [평가]
 -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 및 기록 방식을 적용함.
- [기록]
 - 과목 개설 기관의 교강사에게도 학생 평가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부 기록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현장 의견]

- (평가) 과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평가 방식(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적용해야 함
- (평가) 현행 공동 교육과정의 평가 방식을 차용해야 함.
- (기록) 개설 기관의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이 좋음
- (기록) 다만 해당 기관의 담당자의 업무 증가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음.

학교 밖 학습경험 교·강사의 자격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른 선택과목의 수준과 동일해야 함.

학교 밖 학습을 담당하는 교·강사의 자격을 인정 기관에서 사전에 정하고 향후 운영의 실제적 결과를 평가하면서 자격 부여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방안 적용

단기 방안

- 강사의 경우 중등 교원 자격을 요건으로 함.
 - 다만, 중등 교원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없는 분야, 전문교과Ⅰ의 예술, 체육, 외국어 계열 과목, 전문교과Ⅱ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전공자나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정함.
- 사·도 교육청에서는 연수원이나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조정하여 학교 밖 학습경험과 관련된 지도 인력을 직접 관리해야 함.

장기 방안

-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로 확대
 - 다만,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요청됨.
- (예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요건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자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보유함. 이후 5과목 150시간의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면 1급 자격을 취득함.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 관리



교육과정 측면

- 학교 밖 학습장의 자체 평가보고서,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조사, 관련 조직 구성을 통한 정기적 수업 참관 및 교육과정 평가
- 사·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필요
- 정기적인 수업 관찰 및 교육과정 평가 시 사용할 평가 항목 마련 필요

교·강사 측면

-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강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연수 참여 이력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고 연수를 통해 자기 연찬의 시간을 많이 가진 교·강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 고려

시설 측면

- 질 높은 교수·학습의 실현과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한 학교 밖 학습장의 시설 요건을 법제화하고 지속적 점검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8). 2018 경기 꿈의 학교별 운영 계획서.

교육부(2019). 고교학점제 안내 자료(PPT).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고교-대학 연계 꿈 창작 캠퍼스 운영 계획.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도입추진 방향 및 과제. 2018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자료집(2018.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8-50.

이광우, 김진숙, 이근호, 현해정, 이주연, 김경자, 형인이(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방향 탐색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7-9.

이광우, 이근호, 김진숙, 민용성, 이경연, 권점례, 조보경, 김현미, 김기철, 김현정, 김현수, 이수정, 이민형, 임유나(2018).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 수업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8-13.

이미숙, 이광우, 김진숙, 백경선, 김정빈, 김영은, 이주연, 이수정, 이민형, 임유나, 이상아 (20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발행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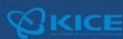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Ontario schools, kindergarten to grade 12: Policy and program requirements.
http://www.edu.gov.on.ca/eng/document/policy/os/onschools_2016e.pdf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8).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9 to 12: Course descriptions and prerequisites.
<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icul/secondary/descript/descri9e.pdf>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생략함.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목 차

- 고교학점제 추진경과
-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
-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와 고려사항
-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유형
-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방향
-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교육과정 혁신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고교학점제 추진경과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교육부
2017. 11. 27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 혁신을 시작한다”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교육부
2018. 12. 14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성과발표회”



교육부
2019. 8. 21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교육부
2019. 11. 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정시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



*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과정,
첫 직장의 취업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 해외 교육제도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는가

- 수행평가, 대학입학사정관, 자유학기제

Q1

고등학교에서 대학처럼
학점단위로 수강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능한가?

Q2

국어, 영어, 수학 등
고교 교과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가?

Q3

고교 교육과정은
대입전형과 직결되어 있는데
대입준비에 문제는 없는가?

4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현실을 모르는 어느 과학자의 오해
우리나라 학교는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교육과정 체계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과정

국가 (교육부)	하나의 학문을 하나의 교과로 구성한 학문중심교육과정 국문학 → 국어, 영문학 → 영어, 수학 → 수학, 물리학 → 물리, 생물학 → 생물 등
시·도 교육청	관할 시도의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침 마련 및 하달,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지도
초·중·고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 교과수업의 요일 결정, 재량활동시간만 내용 자율 편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체제를 벗어나자는 요구는 계속 있었으나...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학문을 교과단위로 하는 교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해 옴

5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고교체제 개편

- ## 고교교육 혁신(고교학점제)

-

대입제도 개선

- 6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초등학교

- ## 중학

- 고등학교

- A: 학습량**

- B:교과서**

- 스언바시

- D:평가방식

- 7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학습량 감축 = 실질적인 선택교과 활성화, PBL, 진로탐색, 동아리활동의 기반

“ 그러나
20% 감축이 안되고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 ”

한겨레

2015.05.28

교육부 '역주행'...중3·고교 인문계 수학 학습량
10%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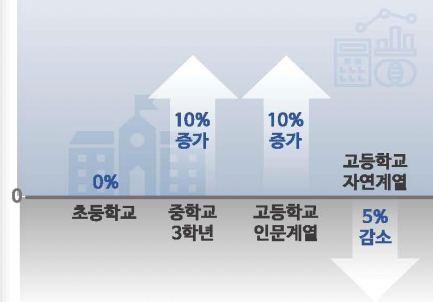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학 교육의 문제가 '학습량 부족'이 아닌 '학습량 과다'에서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학 공부에 주당 노동시간인 40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수학 노동' 문제가 심각하고, 학습 부담 탓에 아예 수포자가 되는 비율도 높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은 일시적으로 학생모집을 증진하고, 추후 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학생모집을 하는 개념이다. 모집유보정원제가 도입되면 대학은 입학정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황 총장은 "잠정적인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집이 어려운 정원을 모집유보정원으로 설정, 일정 기간 모집정원에서 제외했다가 여건이 호전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유보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집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중략)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학습량 증감

※2009학년도 교육과정 대비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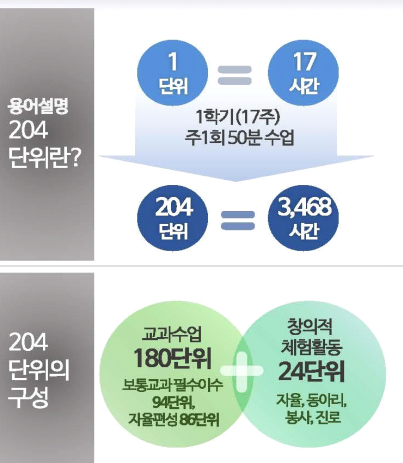


8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2015개정교육과정 이래 우리 고등학교의 204단위 이수단위를 줄일 수 있는가?



“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요구조사에서 현행 총 이수단위를 유지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남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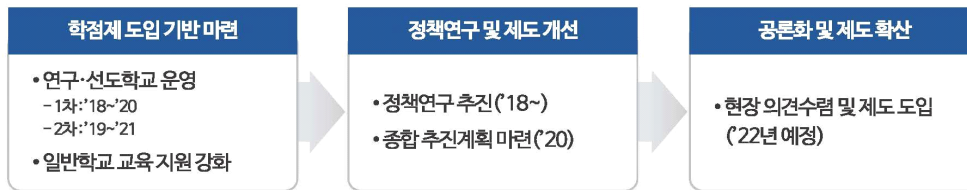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교육부의 단계별 추진 일정(안)



10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와 고려사항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전제조건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학업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대입전형제도와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11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와 고려사항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고려사항 1

고교학점제는
현행 대입제도(내신경쟁, 수능경쟁)
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되겠는가?

장점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에 부합하는 선택교과의
선택방식의 자율성이 높아짐

현안

현실1

수시전형이 일반국민들에게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연계된 활동을 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제 수시전형은 내신성적이
중요한 변별지표로 작용하고 있음. 진로적성 보다는 내신경쟁에서
유리한 선택과목에 집중할 가능성 있음

현실2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도 수능시험의 최저점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후시 모를 정시전형 지원을 위해서 수능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단점

'총 이수단위를 줄이지 않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도입 취지와 달리
학업부담이 실질적으로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고려사항 2

미이수 기준의 도입 등
고교의 졸업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역대 고교교육에서 도입된 적이 없는
것으로 도입에 대한 목적,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 중학교까지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미이수 제도가 없는데
갑자기 고교만 미이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가

✓ 상대평가를 통해 내신성적 산출을 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의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이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고교학점제를 위해 절대평가로 바꾼다면 대학이
내신성적을 대입전형지표로 쓸 수 있는가)



12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와 고려사항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고려사항 3

고교의 내신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중학교처럼 절대평가를 한다면, 대학처럼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우려(대학입학시 변별 문제 발생)

✓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이 유지되는 한 대학입학 시 학생 변별을
위한 내신성적의 상대평가 요구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임

✓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 체제에 의한 내신등급 산출이 유지된다면 내신에
유리한 선택과목 위주의 운영이 예상됨

✓ 대학의 재수강처럼 이수요건 미충족시 재이수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사교육 형태를 촉발할 수 있음

고려사항 4

교육부는 최근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방안에
향후 자기소개서 폐지와 비교과 영역의
학생 기재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 시 비교과 영역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쉽게 예측가능한 상황



13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유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유형
예시

	유형1 단위학교 단독형	학교 교원, 외부 강사 및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모든 선택 과목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모형
	유형2 타 학교 연계형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과목 개설	(일반고 간 연계) 소인수·심화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 연구학교-선도학교 간 연계 등은 시·도교육(지원)청이 지원 (일반고-특성화고 연계) 진로 변경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유형3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	교육청 혹은 지역 공공기관, 대학 등의 유휴 공간 내 수업 운영 및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공간 확보, 학교 간 연계 등은 교육(지원)청이 지원
	유형4 지역대학 협력형	심화과목, 실습 등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내에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계절수업 등을 활용해 정규 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5 온라인 강의 활용형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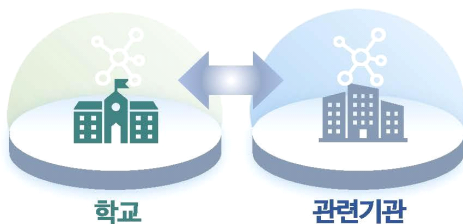
14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방향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느슨한 연계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주고 받는 연계

본질적 연계
인프라와 콘텐츠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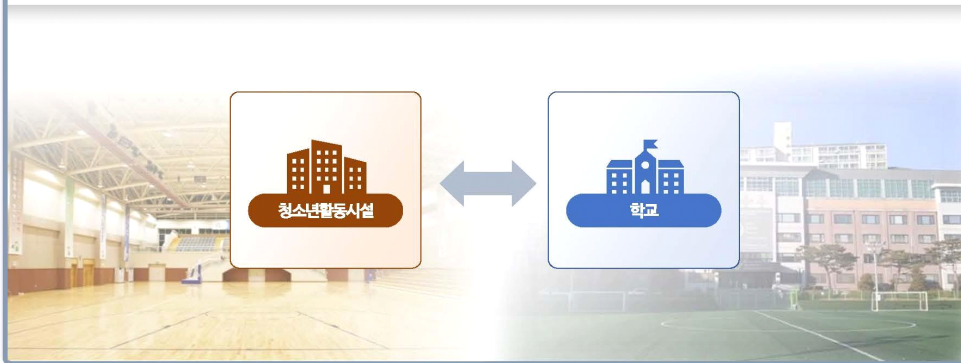
15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모형1 청소년활동시설 연계 모형

-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실적을 이수시간으로 인정
- ✓ 이수시간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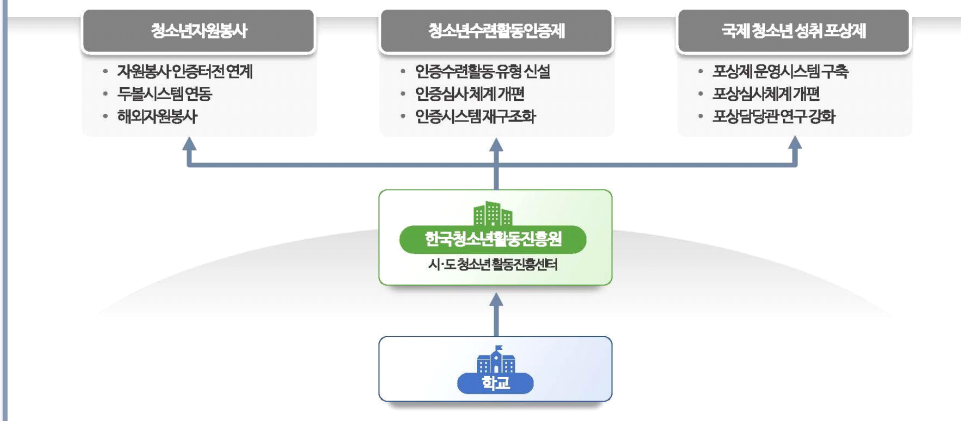
16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모형2 청소년정책사업 연계 모형

- ✓ 청소년정책사업인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인증제, 자기도전성취포상제 참여에 대한 이수시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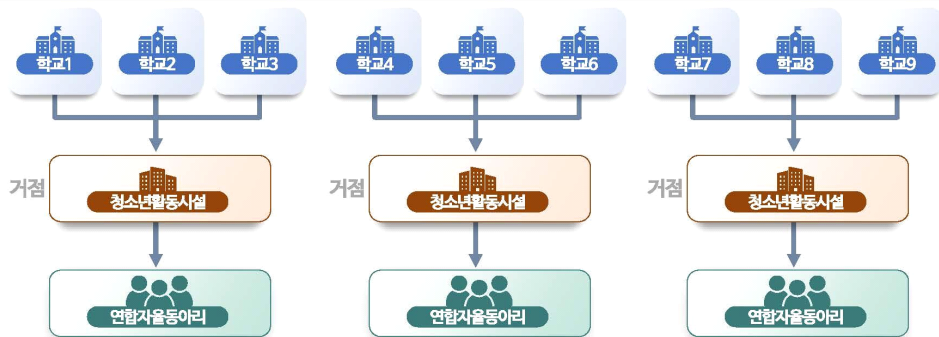
17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모형3 권역별 캠퍼스형 자율연합동아리 모형

- ✓ 고교 1학년 때 전공분야를 결정하고 관련 진로개발활동을 해야하는 현실에 맞춰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이 거점시설이 되어 자율연합동아리 공동교육과정 지원
- ✓ 거점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이 동아리 조직 및 운영 지원



18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유관 사례 :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기관유형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특화시설로서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주요사업

광주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공간으로서 학습과 관계, 일을 스스로 창출하는 진로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생활목공방



시각디자인방



음식공방



살림공방



소리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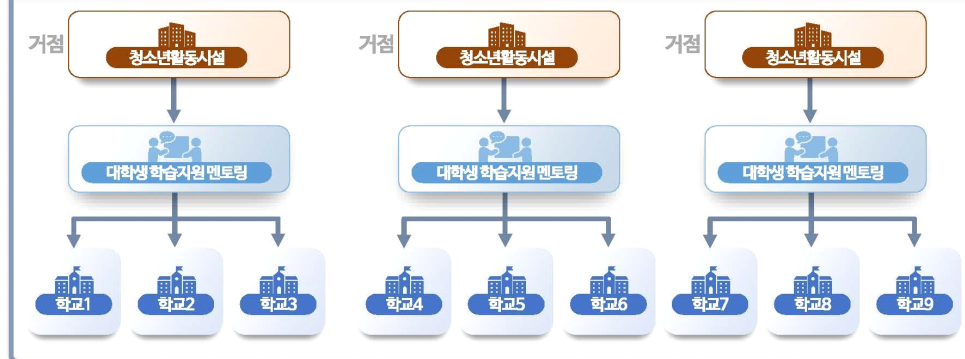
19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모형4 멘토링 및 학습지원 모형

- ✓ 고교학점제에서 이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미이수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
- ✓ 거점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대학생(자원봉사활동, 봉사동아리 등) 연계 학습지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20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모형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업

모형5 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통합 모형

- ✓ 재학생 감소로 통폐합이 거론되는 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통합 운영
- ✓ 도심권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농산어촌은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과 통합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청소년활동시설 통합의 제도적 근거 마련)



21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고교단계에서 교육문제와 청소년문제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

고등학교의 학습량 과다,
치열한 내신 경쟁으로
청소년활동이 끼어들
여지가 없음

학습량과 내신경쟁에서
자유로운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시도

중학교는 내신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교과정을 위한 선수학습
열기로 청소년활동에 한계

“

고등학교는 학습량이 과다한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상식,
고교는 교과공부에 치중해야 한다는 일반 상식은 과연 맞는 건가?

”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선택과 자율적 학습활동 제고라는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이수단위, 이수시간을 줄이는 등 학습량 감축**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자율적으로 선택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함

“

현행 수시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시작단계부터 자신의 전공을 정하고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고교과정에서 자신에 맞는 직업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셈

”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함

”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대학의 고교, 청소년활동시설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제안 검토”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대학기능 다변화 대책으로 대학이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을 부설
운영하도록 제안



UNN 한국대학신문

2019.11.04

구조조정 목적의 대학폐교는 부작용 속출, 대학
기능 다변화로 활로 모색

특례를 인정해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정원 감축에 따른 시설과 자원
여유분으로 사회복지 시설과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은 일시적으로 학생모집을 증진하고, 추후 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학생모집을 하는 개념이다. 모집유보정원제가 도입되면 대학은 입학정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황 총장은 “잠정적인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집이 어려운 정원을 모집유보정원으로 설정, 일정 기간
모집정원에서 제외했다가 여건이 호전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유보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집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중략)

24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부처간 관할문제를 극복하고 연계방식이든 통합방식이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5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감사합니다

토 론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황은희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소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박진슬 하자센터 오디세이 학교 2기 졸업생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박찬열 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토론문

황 은 희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소장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학생 수 급감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초·중등 교육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업 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습의 장을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학습의 장의 확대,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는 고등학교 교육으로 연계되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과목개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영이 어려운 교과에 대해서는 타 학교와 연계한 과목 개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용, 지역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방법 등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으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황은희, 2019).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연구와 같이 학교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에서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방향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의견과 함께 제시해주어 앞으로의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덧붙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밖 학습이 학교 내 학습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학습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밖 학습에 대한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 밖 학습에 대한 심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다양한 경험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상의 과목 이수를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2013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대상 학습경험, 인정시수 또는 단위, 인정 교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인정 기준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손찬희 외, 2015). 학교 밖 학습을 활성화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학교 밖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학습으로 개설이 필요한 그리고 적합한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 중에는 학교 내에서 강사 수급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교과도 있을 수 있고, 반면 도제교육이 필요한 교과, 학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한 교과, 체험 중심의 활동이 필요한 교과 등 학교 밖 활동이 더욱 적합한 교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밖에 단기 방안으로 학교 밖 학습의 장을 대학의 부설 기관, 지자체 부설 기관으로 제시하고, 교·강사 자격을 중등 교원 자격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이수시기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대학이나 지자체 부설 기관에서 중등 교원 자격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1학년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과목 선택의 기초 설계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학년 2학기부터 학교 밖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손찬희, 양희인, 박종성, 최영준, 금지현, 이은철, 이유리, 최교연(201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인정기준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은희(2019).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의 방향과 과제. 2019년 제 3차 고교학점제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안)
－ 직업계고 학점제 －**

2019. 12. 16 .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 박동열¹⁾

1) 이 원고는 박동열, 류지은, 이명희(2019).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인프라 구축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재작성한 것임

I. 추진배경

- ❖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노정
- ❖ 학교 밖 학습경험 확대에 따른 학생의 안전권, 학습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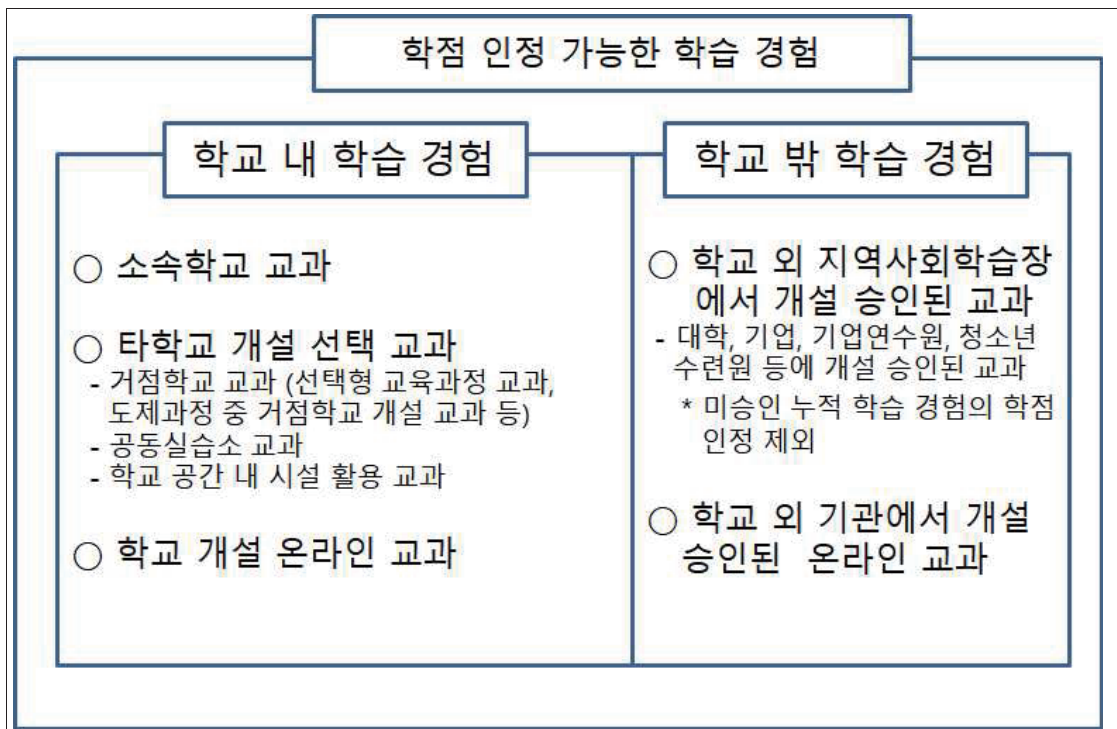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따른 중등 직업교육 패러다임 변화
 - 인공지능, 업무 자동화 등으로 인한 정형화된 업무의 변경 및 비정형화된 업무의 소멸 가능성이 높아져, 중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전망
 -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경직된 학사 제도를 혁신하여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
 - 중등직업교육 인재상, 교육과정, 교육 대상, 학습장소, 학생 평가 등에서 유연한 학사 제도 전환 필요
 - 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에 따른 교육 자치, 학교 자치, 학생 자치 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
- 학교 내 교육과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중요성이 강조
 - 교육의 현장성 확보,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수업의 질 확보 등을 위한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의 유기적 연계 운영 필요
 - 학교 밖 학습경험에서의 학생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학점 인정 체계 구축 필요

II.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안)

1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개념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개념 및 유형

- ‘학교 밖 학습경험’이란 ‘학생의 특성·진로와 연계한 내용으로서 학교 내 운영이 어려운 학습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의미함(박동열 외, 2019)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이란 ‘교과로 사전 편성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교 규칙에 따라 심의하여 사전 편성된 해당 교과를 이수하여 학점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함(박동열 외, 2019)
- 1 유형 : 학교 내 운영이 어려워 사전 교과로 편성된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규칙에 따라 해당 교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유형

※ 예 : 한국금형협회 주관의 ‘금형과정’을 ‘금형제작’ 교과로 사전 편성

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경험(금형과정)을 이수한 경우 '금형 제작' 교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 유형 : 교과로 사전 편성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교 규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유형

※ 예 : 한국사 3급 자격 취득한 학생에게 한국사 2단위 인정함

- ⇒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5년까지'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은 1 유형으로 제한하여 적용함
- ⇒ 향후 중장기적으로 2 유형의 적용 방안을 고려함

2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절차

- 단위학교-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절차 체계화 추진
- (교육부)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공동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
- (시·도교육청) 기본계획 수립(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실행계획 수립 및 공고(지역사회 학습장 인정 기준 및 절차 확립)-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 (지역사회 학습장) 평가인정 확정 및 통보(지역사회 학습장과 단위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협력)
- (단위학교) 신청서 작성(학교 밖 학습경험 신청서 작성)-평가인정 관련 조사 및 확인(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교과목 운영 및 평가계획)-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평가인정 확정 및 통보-이의 신청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추진 절차]



자료: 박동열 외(2019)에서 인용함

- 학교 밖 학습경험 기관의 교육감 미승인 규정에 따르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학생의 안전권,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절차’의 규정화 추진 필요
 -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보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학교 밖 학습경험 질 관리 차원에서의 협의 필요

3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관 대상 및 기준

-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점 인정 기관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교육',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 기관', '주말 학교, 계약학교 등 통합교육 참여하는 공공 교육 기관' 등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직업계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

[2015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서 제시된 근거]

●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이수 과목 인정

-(총론) '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1) 공통사항'의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해설서) 학교는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직업계고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기관은 ① 대학, ② 기업 및 연수원, ③ 공공성있는 사회 교육 기관(직업훈련원, 청소년 수련원 등), ④ 승인된 원격 교육 기관(방송통신고 등) 등임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밖 학습 기관의 규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대학	○	○	○	-	-	○	-	○	○	-	○	○	○	○		-	○
기업 연수원	○	○	○	○	○	-	○	○	○	○	○	○	○	○		○	○
청소년 수련원	○	-	-	-	-	-	-	-	-	-	-	-	-	-		-	-

주) 경남의 경우 직업교육 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음.

자료: 2019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경기도교육청 특성화 교육정책 기본계획_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 2019 강원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2019 전라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8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설명회 자료, 2018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설명회 자료, 2019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2019 세종시교육청 중등직업교육 기본계획, 2019 제주시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

□ **지역사회 학습장의 학점 인정 주요 선정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규정 제시 항목****의 규정화 추진

*** 주요 기준 :** ① 학생의 적성 및 요구 반영한 과정 개설, ② 학교 내 운영이 어려운 교과 개설 여부, ③ 학교 내 교과와 유사한 수준의 과정 개설, ④ 학점 인정 기관 유형별 기본 여건 확보 여부

**** 학점 인정 규정 항목 :** ① 인정 대상, ② 인정 과정 시기, ③ 인정 심사 및 방법, ④ 인정 학점 범위, ⑤ 평가 방법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이수 인정 기준 항목별 규정 사례]				
구분	부산시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대상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이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	•대학 및 대학 부설 연수원에서 학교장이 고교생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학업 •산업체 및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기관(공공직업훈련원 등)이 시행하는 고등과정 및 전문과정의 부대적인 교육사업 •원격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방송통신고 활용 원격 및 출석수업		
시기	-	•방과 후 시간 •방학 기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과 시간 •현장실습 기간		
심사 및 방법	•위탁기관 개설 과목 이수 희망 신청서와 학업계획서 제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사 및 학교장 보고- 위탁기관과의 사전 협의-학교장 승인 •교육감 승인 위탁 기관은 계획서 제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이수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 결정 후 위탁기관 이수결과 인정	•학생 신청-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학교장 건의 •학점 인정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 후 학교장 판단에 의해 인정		-
학점 수	•학기 당 두 과목 이내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 가능	-	•36단위(한 학기 분) 초과 불가	•34단위(한 학기 분) 초과 불가 (원격수업 8단위 이내)
평가	•수업 시수 2/3 출석 및 과정 이수 기준 충족 시 이수 인정 •성적 처리와 나이스 입력은 당해 연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처리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평가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 및 평가는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		
지도	-	•학교 밖 학습경험의 유형에 따라 학교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학생은 계획서의 제출하며, 활동 보고서를 통한 성과 보고를 하는 등 사전·사후 적절한 지도		
자료: 2019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8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관(과정) 중 대학 연계 과정은 크게 일반고 위탁직업과정, 공동교육과정, 협력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선정 기준은 훈련 과정의 적절성, 기업의 참여 의지, 신용등급, 상시 근로자 수, 장기 근속자 비율, 훈련시설장비,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절성 등임

- 선택형 교육과정은 크게 타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기관(대학)과 연계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래 제시된 대학과 연계한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음

[고교-대학 연계 과정 운영 개요]		
구분	항목	기준 및 절차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 운영
	대상	일반계고 3학년 학생 1,000명
	교육과정	전문기술과정 주간 1년
	학사운영	전문기술과정 학사운영규칙 준용 ※ 장기결석 등 면학분위기 저해 학생은 본교로 환원 조치할 수 있음.
	취업 연계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 취업기회 제공
	진로설계 및 학습연계	취업 후 다양한 진로설계 및 학습연계 가능 ※ 경로 1: 고교재학+폴리텍(전문기술과정) ⇒ 기업체취업 ⇒ 폴리텍 2년제학위과정(야간) ⇒ 폴리텍 학위전공심화과정 ⇒ 공학사 학위취득 ※ 경로 2: 고교재학+폴리텍(전문기술과정) ⇒ 기업체취업 ⇒ 폴리텍 기능장과정(야간) ⇒ 기능장 자격취득
공동교육과 정	목적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희망과 적성, 수준에 맞는 예술, 체육, 외국어 등 전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대상	일반고 2학년 학생
	교육과정	약 2개월 지역 인근 4개 대학에서 약 2개월 간 토요일 오전 단위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6개 교과목을 개설, 운영
	선발 방식	협력대학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과목별 10~30명을 선정함. 1기 과정에는 42개 학교 학생 124명이 참여함. ※ 부산시교육청 지역대학과 고교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 참고.
협력교육과 정	목적	단위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험,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일반고/대학과 연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연계 학습 기회 제공
	교육 시기	방학 중
	대상	일반고 1~2학년 학생(1,000명 내외, 2학년 우선)
	개설 과목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융합(정보/영화/연극) 교과
	개설 강좌	토의·토론, 탐구·실험, 과제연구, 진로연계 체험 및 탐색학습 등
	이수 단위	과목당 2단위 추가 이수
	선발 방식	학교장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강좌별 20~25명 내외 선정
주) 공동교육과정과 협력교육과정은 부산시교육청의 ‘지역대학과 고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과 ‘서머인터스쿨’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자료: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부산시교육청(2019).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관 중 기업의 인정 기준은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또는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기준을 활용하거나 해당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함

- 기업 기준으로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환경, 교육과정 및 훈련과 관련한 기준(전공적합도, 기업규모와 복지수준, 현장실습생의 안전, 장기근속률 등) 등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활용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기준]	
필수 기준(참여·선도기업)	일반 기준(선도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없는 기업 -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기업 - OJT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기업(참여 1주, 선도 4주 이상) -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 전공적합도 - 현장실습생 연봉 - 기업 규모 - 기업복지(기숙사 등) - 안전 및 보건관리 적정성 확보 유무 - 장기 근속률 등
자료: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관련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특성화·마이스터고 3학년생 채용 관련)	

-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기관의 인정 기준은 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 지도사(교원)의 자격, 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 계획, 숙박 관리 등으로 구분함
- 원격교육기관의 인정 기준은 온라인수업의 대상, 운영체제, IT인프라, 운영과목, 평가, 교원 등으로 제시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시·도교육감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대상 및 수업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아직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마련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및 개요]

구분	항목	기준 및 개요
대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운영 체제		교육부-시·도교육청-위탁기관 연계 운영
IT 인프라	서비스 제공 방식	- 교실온달(classon.kr)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제공 - 수업 개설 및 승인, 개설교과목 조회, 수강 신청, 수업, 학생 관리, 평가 등이 모두 교실온달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화상수업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운영 과목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	별도의 콘텐츠 없이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정해진 수업시간에 배정된 교사가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 * 2018년 1학기 시범운영 교과목은 주로 사회와 과학교과가 개설되었고, 다수의 교양교과가 개설됨.
평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의 평가 기준 준용	- 2018년 3월 1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항에 따르면 수강 인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성취도만 기록하도록 함. 또한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항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 이수로 인한 이수 과목 상이 등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입력하도록 규정함.
교원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준용	- 단위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하며 교원 기준은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동일함. - 개별학교 소속 교사 혹은 강사가 수업을 담당함. 단위학교 소속 교사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음.

자료: 정광희 외(2018).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학력·수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p. 76-79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 ⇒ **학점 인정 대상** : ① 대학, ② 기업 및 연수원, ③ 공공성있는 사회 교육 기관(직업훈련원, 청소년 수련원 등), ④ 승인된 원격 교육 기관(방송통신고 등)
- ⇒ **학점 인정 시기** : ① 방과 후 시간 ② 방학 기간(계절학기) ③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과 시간 ④ 현장실습 기간
- ⇒ **학점 인정 기준** : ① 학생의 적성 및 요구 반영한 과정 개설, ② 학교 내 운영이 어려운 교과 개설 여부, ③ 학교 내 교과와 유사한 수준의 과정 개설, ④ 학점 인정 기관 유형별 기본여건 확보 여부
- ⇒ **학점 인정 범위** : 최대 34 학점 (원격교육 8학점 이내)
- * 최대 34 학점 근거 : 현장실습 전환학기제, 1학기 이수 학점
- * 원격교육 8학점 근거 : 1일 7단위 이수 가능
- ⇒ **학교 밖 학습경험 평가 및 성적 처리** : 선택형 교육과정 규정 준용

4 학교 밖 학습경험 참여 학생 관리

□ 학교 밖 학습경험 참여 학생 관리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준하여 중도탈락생 관리, 성적 평가 및 처리 등을 추진함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제시된 선택형 교육과정의 대상을 직업계고 학생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적 평가 및 학생부 기록은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준하여 실시함

- 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거점 학교(또는 학교 밖 학습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거점학교(학교 밖 학습기관)	소속 학교	기타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제2013-7호, 2014.12.30.) •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제2014-27호, 2014.12.30.) 제3장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대안교육 등 세분화된 진로집중과정 및 학생의 희망과 수준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음. -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진로집중과정 및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에서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16. 3.)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제2013-7호, 2014.12.30.) •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제2014-27호, 2014.12.30.) 제3장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대안교육 등 세분화된 진로집중과정 및 학생의 희망과 수준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음. -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진로집중과정 및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학교 등에서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16. 3.)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7-108호, 2017.1.6.) -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함.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등

자료: 박동열 외(2017).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서 인용함

○ 시도교육청별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학교 밖 학습기관, 참여 희망 학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구분	주요 내용	
	거점학교	기타
운영위원회	2017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기본계획 - 운영학교별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자료: 박동열 외(2017).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서 인용함

○ 학교 밖 학습 과정의 편성 및 운영 근거를 위하여 다음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함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거점학교	소속 학교	기타
교육과정 편성·운영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4-27호) 제2장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3장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가능 - 운영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대안교육 등 세분화된 진로집중과정 및 학생의 희망과 수준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4-27호) 제3장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소속 학교는 운영학교 등에서의 과목 이수 인정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48조 -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함.

자료: 박동열 외(2017).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서 인용함

○ 학교 밖 학습 과정 운영 시기에 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거점학교	소속 학교	기타
운영시간	2017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기본계획 - 일과 중, 방과 후, 주말, 방학 중(계절학기 지양) -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및 참가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4-27호) [별도반 구성 및 특별 보충] - 소속 학교는 가급적 협력 교육과정 참여학생들을 별도로 구성 - 수업 결손이 있는 경우 특별 보충수업 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함. - 수업은 주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함.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함. 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음.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구분	주요 내용		
	거점학교	소속 학교	기타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 편성) -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해야 함.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병합 가능 -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 - 학교의 장이 수업 시작·종료 시간을 정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대안학교의 수업일수) - 매 학년 180일 이상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방송통신학교의 수업일수) -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름. - 출석수업은 매 학년 20일 이상, 출석수업 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 -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 수업으로 실시 가능

자료: 박동열 외(2017).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서 인용함

○ 학교 밖 학습경험 참여 학생의 출결 관리, 성적처리, 생활지도, 취업 및 추수지도, 수업시간표 등에 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항목	소속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학습기관)
출결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합산하여 출결란에 기록 • 위탁생은 소속 학교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월요일 소속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 • 소속 학교는 위탁생 개인별 출결기록부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 무단, 기타 구분) 등을 기록]를 매월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즉시 입력	
성적 처리	• 위탁생의 성적관리는 교육부 훈령(제195호 2017.03.01., 제169호 2016.04.05., 제127호 2015.01.09.)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2017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적용	• 위탁교육기관은 3학년일 경우 수업을 주당 2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고, 2학년일 경우 주당 28시간 이상(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실시 • 위탁교육기관은 평가를 위탁교육기관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실기평가 성적을 반영한 성적을 학기 말 이전에 소속 학교로 송부

항목	소속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학습기관)
	제26조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처리) ①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에 송부한 출결상황, 교과 학습발달상황은 그대로 인정하며, 행동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은 소속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소속 학교의 학급담임교사가 평가한다. ②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③ 직업과정 위탁생의 석차 산출에 있어서 일반고 및 자율고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 수는 이수단위가 다르거나, 동일 과목, 동일 단위수이더라도 학습내용(진도 계획)이나 성취수준이 다를 경우 분리 산출한다. ④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 위탁생이 이수하는 소속 학교의 교과 평가는 월요일에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소속 학교에서 편성한 교과목 중 이수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포함)를 기록하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와 단위 수를 소속 학교에서 등재 - 소속 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그대로 인정하며,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은 소속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소속 학교의 학급담임교사가 기록	
생활 지도	- 학교장은 직업위탁생으로 별도반(학급 인가내)을 편성하고, 위탁교육기관과 위탁생 생활의 연계지도를 위해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위탁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담당 - 소속 학교의 위탁생 담당교사는 위탁교육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위탁생들의 출결 및 수업상황을 점검·격려하고, 위탁교육기관과 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 - 소속 학교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연 2회 이상 방문하며,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교육청에 즉시 제출	- 위탁생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두어 소속 학교 담당교사와 공동으로 위탁생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함(단, 지도 요원으로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을 자원 인사로 초빙할 수 있음). - 출석할 수업일수가 기준에 미달할 때는 사전 소속 학교와 연락 협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 무단장기결석, 면학분위기 방해 등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해당 학교와 협의 후 위탁생의 위탁교육을 해지할 수 있음.
취업 및 추수 지도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은 위탁생에 대한 취업지도 및 추수지도에 노력	위탁교육기관은 소속 학교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료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 및 추수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교육 과정		-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및 협력 교육과정정점학교 - 전문교과는 연 56단위 이상, 952시간 이상(28단위×34시간)으로 운영 - 기타 위탁교육기관 - 전문교과는 연 60단위 이상, 1,020시간 이상(60단위×17시간)으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은 연 4단위 이상, 68시간 이상(4단위×17시간)으로 운영[단, 소속 학교 등교일이 월 1회인 경우 5단위(85시간) 이상 운영하여 함.]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 - 요일별 운영 방법 (월요일) 3학년일 경우 소속 학교에서 미이수 필수교과(군)과 미이수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준으로 6단위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2학년일 경우 소속 학교에서 기초, 탐구, 체육·예술 교과 영역에서 미이수 필수단위 교과(군)를 6단위 이상 편성하여야 함(연 12 단위 이상). - 교육과정은 직업과정을 적용하되, 소속 학교에서 편성한 교과 중 미이수 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등교일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을 실시 ※ 기술교육원, 전문대학, 지정기관, 특화과정 인정기관 등은 매

항목	소속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학습기관)
		월(월요일) 1회 이상 소속 학교 등교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화요일~금요일) 위탁교육기관에 출석(주 4일)하여 전문교과 등을 이수(주당 28시간 수업) ※ 2학년 과정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은 위탁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준함.

자료: 박동열 외(2017).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에서 인용함

Ⅲ. 추진 과제

1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본 계획 수립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기본 계획 수립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조직 구성 및 운영

2 학교 밖 학습경험 학점 인정 정보 체계 구축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가능한 '지역자원목록' 작성

☐ 학교 밖 학습경험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붙임 1. 학교 밖 학습 과정 개설의 교육감 사전 승인 여부

교육청	교육감 승인 여부	내 용
서울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가능
경기	○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시행 전 학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인천	-	구체적 언급 없음
부산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위탁기관 개설 과목 이수 희망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정한 <학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적격 여부 심사-학교장 검토 및 승인
대전	-	학교장은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을 인정
대구	○	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를 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과목으로 인정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울산	○	교육감의 사전 승인
광주	-	학업계획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제출-적격 여부 심사-학교장 승인 (교육감이 승인하는 위탁교육기관 활용 가능)
강원	○	해당 학기의 6개월 전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
충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학교 외 학업 이수 신청 적격 여부 심사-학교장에 건의-학교장 최종 승인
충북	○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름.
전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학교 외 학업 이수 신청 적격 여부 심사-학교장에 건의-학교장 최종 승인
전북	-	구체적 언급 없음
경남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경북	-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야 함.
세종	○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교육감의 사전 승인
제주	○	교육감의 사전 승인

붙임 2. 승인 신청서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

교과목명		대상 학년 및 이수 단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장소		이수 기간	~			
이수 기관명 (지역사회학습장)		지도교사(강사) 교원 자격 유무				
필요성 및 목적						
내용 요약						
이수 방법						
평가 방법						
기 타 특기사항						

위와 같이 학교 외 학습 이수 인정 교과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학교 외 학습 이수 인정 교과목 운영 계획(평가계획 포함) 1부
2. 협약서 1부
3. 심의회 사본(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1부.

20 년 월 일

고등학교장(직인)

0000 교육감 귀하

붙임 3. 시·도교육청별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서울	6) 다른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이수 인정 -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및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등을 통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 인정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가능 5)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름
경기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시행 전 학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인천	가. 공통 지침 8)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8)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 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 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	1. 공통 사항 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록> '4. 다른 학교 등에서의 이수 인정'에 따른다. 8)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7. 현장 실습'에 따른다.
대전	가. 공통 지침 12)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정 과정

	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대구	가. 공통 사항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를 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7)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학교장이 시기,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산업체 파견, 전문교과 일부 과목에 포함 운영, 단일과목(현장실습) 편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계열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울산	1. 공통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현장실습은 학교장이 시기,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산업체 파견, 전문교과 일부 과목에 포함하여 운영, 단일 과목(현장 실습)편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등 교과(군)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현장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바.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감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이수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	가. 공통사항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수를 인정한다. 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소속 학교에서 정한 학업 계획서를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생이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학업 이수를 신청할 때, 소속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 학업 이수 인정은 소속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라) 학업 이수 시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위탁교육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한다. 11)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른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에 위탁하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9)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더불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실습 및 현장실습 지침'에 따른다.
강원	기본사항.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 및 산학 협력업체 등)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학기의 6개월 전에 학교 외 학습 교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7)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강원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 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마.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바.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겸임,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충남	가. 공통사항 9)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장 '학교 외 학업 이수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지침에 따른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7)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충북	가. 공통 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은 전문 교과, 보통교과의 체육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교과는 현장실습 시기에 집중 편성함을 지양한다.
전남	가. 공통 사항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7)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전북	가. 공통 사항 12)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지침에 따른다. 라.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8)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지침에 따른다. * 전라북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바.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경남	가. 편성 11)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이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의 학습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아.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전문교과의 이수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3)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한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경북	가. 공통 사항 9)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야 한다. 라.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세종	1. 공통 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주	2. 공통 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다.
--	--

출처: 2019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2019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9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 2018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8 고등학교 대구·경북지역교육 총론, 2019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7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9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8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7 전라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8 경상남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7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9 고등학교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17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토론문

-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

박 시 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1.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논의

- 고교 학점제를 활성화하고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 라는 고교학점제의 정의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한다. 학교의 학급 수에 따른 교원 수급 방식,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학교의 학습 공간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 들로 인해 고교 학점제를 위한 기본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완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여건과 ‘지역 사회와 학교와의 연계’ 측면에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과목 이수 기회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규 고등학교 학생이 학생의 적성·진로에 맞는 과목을 지역 사회 학습장, 대학, 청소년단체, 예체능단체, 직업교육단체 등 다양한 사회교육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이수한 과정을 평가하여 학점(단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과목의 성격

-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학교 밖 학습 경험은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 장치로 작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선택과목을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

밖의 제도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밖의 학습 경험이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그만큼의 질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과목군 분류를 확인하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과목에 한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인지, 운영 교육과정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만 승인을 하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과목의 질과 과목군에 대해 잘 살펴보고 판단, 승인하여 다양성과 과목 이수의 공정성을 같이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학교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과목의 평가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학생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질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미이수의 기준을 출석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내실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2학년 1, 2학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학년은 공통과정이 운영되고, 아직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기라서 어려우며 3학년의 경우에는 대입이 중심이 되어 경험의 확장성을 높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4. 학교밖 학습경험 이수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 1)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학습경험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는 개설 과목 및 프로그램의 강사 자격과도 연결이 된다. 무자격 강사(해당과목 전문가)의 경우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의 실질적인 강의는 가능해지지만 사교육 시장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강사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검증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2) 학교 밖 학습 경험을 204단위 외에 추가 이수 단위가 아니라 포함 단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밖 학습 경험은 대입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단위를

통해 유사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학교 정규교육과정만큼의 질 관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장기적으로 학습공간을 마을로 확장시키고, 학교 밖에서 학생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만들고 지도 교사를 섭외해서 과목을 만들고 이수하는 것까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향」 토론문

- 나의 배움은 학교 안에만 있지 않았다 -

박 진 슬

하자센터 오디세이 학교 2기 졸업생

오디세이학교에 다니고부터 하자센터에서 일반 학교와는 다른 수업을 했다. 우선 토론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교칙을 정해왔다. 학교의 모든 문제 예를 들면 수업 중 핸드폰 사용, 친구 관계의 문제, 누군가의 위협하거나 단독적인 행동 등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하는 게 익숙해질 때 즈음 하자센터에서 9박 10일 동안 속초까지 걸어가는 '걸어서 바다까지'라는 여행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학습 동안 매일 밤 모여 그날 걷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 자칫하면 위험했던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직접 규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군가 한둘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의 문제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었던 우리는 결국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나는 회의를 하면서 학교의 구성원이 됨을 느꼈고 나와 누군가의 다름에 대해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하자센터에서 자전거와 영상 글쓰기도 배웠는데 자전거와 영상 모두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자전거 수업의 경우는 다 같이 자전거를 탈 때 서로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직접 정비하고 버려진 자전거를 업사이클링을 했다. 이는 내가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니라 생활 도구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상 수업도 단순히 영상기술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협업으로 영상을 만들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과 내가 만든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에 덕으로 주춤주춤 영상을 더 잘 만드는 경험을 얻었다.

글쓰기 수업은 나를 표현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쓴 글에 성적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잘 쓰고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오디세이학교의 글쓰기 수업은 솔직한 글을 쓰는 것을 유도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글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글쓰기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우리도 서로의 글 읽기를 좋아했고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었다. 일반 학교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재미없게만 느낀 글쓰기가 오디세이학교 글쓰기 수업에서는 수업이 있는 날 아침부터 기대하는 수업이 되었다.

나는 동아리 활동으로 편집부를 하였다. 격달에 오디세이학교 소식지 내는 활동인데, 이 또한 편집부원끼리 소식지에 무엇을 어떻게 실을 것인지 어떤 글을 누가 쓰거나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편집부 활동을 하며 나는 작은 소식지 하나를 만드는 것에도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주로 오디세이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에 대한 리뷰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글로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해볼 수 있었다.

나는 오디세이학교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만일 이 모든 활동을 수시 입시를 목표로 수치화하였다면 나는 진정한 배움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글쓰기는 물론 다른 교육 활동에서 '피드백'이 아닌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였다면 나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교자율학점제가 학교 밖 활동을 대입반영을 위해 수치화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디세이학교는 수치화 성적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학기마다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는 자기 평가서를 썼으며, 영상 수업에서는 영상 자전거 수업에서는 새 활용한 자전거, 편집부에서는 소식지, 그리고 사회 수업에서는 매 수업 나누어 준 자료와 수업 때 쓴 내 주장에 대한 글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기 평가서를 쓰면서 한 학기에 나의 아쉬웠던 부분과 나의 성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시간이었고 나의 성장의 증거이다.

다만 내가 오디세이학교에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항상 같은 목표나 의지를 갖추고 오는 경우가 아닐 때였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관심사가 다르고 각오가 달라 수업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물론 서로가 다른 부분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도움 되었지만 1년 내내 의지와 목표가 다른 사람들끼리 맞추는 것에 힘을 빼는 것은 아쉬웠다. 고교자율학점제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토론문

-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

임 유 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고교학점제라는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한 마디로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교가 정해서 마련해준 고정 식단표와 같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쌓아서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채우게 하는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자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목을 선택하며 학점으로 쌓아간다는 것은, 선택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학생을 학습의 주체, 자기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최근 넘쳐나고 있는 미래교육과 핵심역량의 담론들 속에 공통된 내용과 방향은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인간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가며 미래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교육에서 특히 학습자 주체성(Learning Agency)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습자 주체성은 정체성과 소속감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 혼자의 주체성이 아닌 공동의 협력적 주체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협력적 주체성(Co-Agency)이란 부모, 교사, 지역사회 및 타인과의 쌍방향적이고 상호지원적인 관계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교육체제는 학생의 학습자 주체성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의 협력적 주체성이 확보된 거버넌스 체제라고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와의 단절뿐 아니라, 학교급간, 이웃학교 간, 교과목 간에 분절된 블록형 교육시스템을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생태계형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학생과 청소년을 존재론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이들의 성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법령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분리된 정책을 펼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교육과 청소년 문제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발제자는 고교생들에게 부과되는 과다한 학습량, 치열한 내신 경쟁으로 교과 공부에 치중해야 하는 고등학교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학교교육이 본질적으로 삶으로부터 단절된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학문 체계를 그대로 교과 체계로 받아 안고 있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폐쇄성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공부 외에 융통성과 개방성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교과 아닌 교과가 마련되기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비교과 영역의 편제가 등장하였는데, 이 역시 학교 내에서 형식적 운영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된 것은 근래 몇 년 사이에 자치구청별로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과 방과후활동 영역은 자치구청에서 책임지고 맡는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모범적인 자치구청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고등학교보다 먼저 실질적인 학생 선택교육과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의무보통교육인 중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준이지만, 1학년 자유학기(년)제에서는 교과 시수를 대폭 줄이고 자유학기 활동으로 다양한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지역사회의 교육주체들과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거버넌스 사례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주제선택활동은 학생 흥미와 선택에 의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는 영역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중간, 기말 지필고사가 없어진 데 따른 수업과 평가의 변화는 물론이고, 자유로운 탐색과 선택과 몰입이 가능해지는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다.

고등학교에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그 명칭 때문에 이미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어떤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주의 구조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시설이나 단체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 주체로 학교와 관계를 맺고 학교 교육에 직접 연계 투입되는 것에는 교사자격증이나 교육과정 이수 인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지만, 그보다 교사들에게 내면화된 교과 전문직으로서의 심리적 장벽이 더 높게 학교를 둘러싸고 학교 밖 학습 세계와 학교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제 자료에서 제시된 고등학교와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방향 모형들은 지금까지 선언적으로 제안되었던 협력과 지원, 인프라와 콘텐츠의 통합 등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 운영과 발전에 대한 전망을 느끼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은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라는 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와의 직접 연계보다는 지역과의 연계가 더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시설 사용 등 학교와의 직접적 연계를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초, 중학교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발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나 학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들 입장과 편의대로, 학생과 청소년을 존재론적으로 다르게 구분하는 인식과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토론문

주 경 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거시적 사회구조 변화 흐름과 한국의 교육 현실

발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초래할 다양한 상황적 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 중심으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 이념, 지향의 문제만도, 현실과 적응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인 성찰에 많은 부분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단순히 대학입시나 교육과정과 같은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거시적 사회구조의 변화 흐름과 교육의 현실을 함께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왜 중요한 고교 교육제도 변화의 화두로 등장하였는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초래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형성과 변화는 무엇인지, 그에 맞춘 사회적 대비 부분에서 교육계는 물론 유관분야와 그 밖의 분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산적 논의를 이어가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연 평균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30-50클럽이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70년 간 경제발전 에 맞추어 상당부분 민주화도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복지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회적 구조와 체질 개선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발전을 견인한 교육이라는 분야 또한 사회 발전과 더불어 정량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1980년에 고등학교 취학률은 38.8%,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47.5명, 중학교 45.1명, 고등학교 33.3명이었다(e-나라지표, www.index.go.kr). 2019년 현재는 고등학교 취학률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이긴 하나) 91.3%에 달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10.6명에 불과하여(e-

나라지표, www.index.go.kr),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OECD, 2019).

이처럼 교육환경이 양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공공성과 내실화 측면에서 교육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국민 총생산 대비 사교육비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참여율은 최근까지 증가추세에 있으며(e-나라지표, www.index.go.kr), 입시와 학원에 내몰린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청년실업, 부동산,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기성세대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세대 간 격차와 갈등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교육혁신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 지역사회학습장로서의 청소년시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 즉,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이광우 외, 2018, p. 91).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학교 밖 학습장의 범위와 인정의 주체,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사회학습장으로는 대학, 직업훈련원, 기타 공공성 있는 교육 기관 및 산학 협력업체 등이 있다.

발표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공공 청소년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진흥센터)과 서비스 전달체계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어떻게 고교학점제에서 인정할 프로그램을 조직, 설계, 협력,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창의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운영 중인 국가청소년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 그리고 시설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될 고교학점제와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상호 연계되는 방향은 그간 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소년계에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또는 연계가 성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과 과제해결이 필수적이다.

○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위한 전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육과정이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었다. 발표에서 언급했듯, 이 때 시작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 시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는 기존의 학교교육이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을 바탕으로 한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과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획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이러한 활동 중심의 교육은 주로 청소년사업 실천현장에서 담당했던 몫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부터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체계적 통합이 아닌 비체계적 혼합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탈(脫)학교교육 혹은 비(非)학교교육을 추구하던 청소년현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표족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개척했는지에 관해서는 청소년(교육)계에 몸담은 나 자신도 강하게 긍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늦었더라도 청소년사업(youth work)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을 다지고, 그에 맞춰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고교학점제라는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계와 청소년계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신뢰형성이 절실하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서는 대상중심 실천 전문분야인 청소년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 내 인프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통합 시도를 하는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담은 높다'라는 구시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고자세를 지양하고, 융합과 개방이라는 키워드로 열린 학교, 공동체 속 학교로 정체성을 변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때 교사는 단순히 특정 교과목의 전문지식 보유자, 교육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모든 학생의 개성과 교육요구를 바라보고 그들을 조력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계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학교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접근을 신중히 했던 부분을 극복하되,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사업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 전문영역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성을 증진할 때 향후 전문영역으로 교육 분야와 상생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방향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는 기존의 정책과 서비스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어떻게 정책연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성공적인 연계와 통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발표자가 강조했듯 이를 위해 부처 간 관할문제를 초월하려면 이 시대 대한민국 청소년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의 연계방향과 시사점」 토론문

박 찬 열

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먼저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이다. 그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발제자의 귀한 원고를 읽고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발제문은 고교학점제와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모형을 총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청소년 활동시설과의 연계모형 4가지와 청소년 정책사업 연계 모형을 1가지 제시하였는데, 청소년 활동시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가지 모형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시설과 고교학점제의 연계는 일견 긍정적인 면이 많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사고를 환기시킬 수 있고, 특성화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문적이고 최신의 시설과 장비의 활용에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시설이 학교와의 다양한 연계사업 수행을 통해 이해 및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에서도 오전 시간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여건의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골고루 설치되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실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청소년활동시설은 운영주체, 운영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고, 공간 활용으로 인해 기

존 평생교육강좌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건이 허락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의 시설부터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를 청소년활동시설과 연계함에 있어 교육 기부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제한적 수준에 머물게 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교학점제를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운영할 때 관련 예산은 누가 부담하며,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과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위탁형 대안학교와 같이 학생이 본교에 내는 수업료를 청소년활동시설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시설의 상당수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지자체를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셋째,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어떠한 위상과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발제자가 이수시간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마을자원에 대한 교육당사자 간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다. 즉, 학교 밖 교육자원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의 전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자원인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와 연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이수시간 인정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방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프로그램이 양질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을 여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곧바로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고교학점제라는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에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위탁형대안학교 모형을 참고하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과 범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가 아닌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비진학 학생들까지로 범위를 확대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자 대안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36곳 중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이 9곳이며, 4곳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에서 운영중이다. 이렇듯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형대안학교를 유연화하면서 청소년활동시설과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모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와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교학점제와 청소년활동시설의 활발한 연계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느슨한 수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추이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MEMO

MEMO

MEMO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인 쇄 2019년 12월 13일

발 행 2019년 12월 1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